

‘일본정원 우라쿠엔의 사계절에 대해서’

우라쿠엔의 사계절

많은 전통예술이 그러하듯이 다도에서도 계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회(茶會, 차모임)는 계절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인은 계절적 요소로서 장식이나 차도구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정원도 일년 내내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라쿠엔에서는 단팔이 든 과자의 색처럼 섬세하게 혹은 만개한 벚꽃처럼 멋지게 계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시가에는 1년을 사계절뿐만 아니라 24 개의 기간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시기마다 각각 꽃과 과일, 새 등 계절적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화와 피코리는 이른 봄의 상징이고, 보름달과 억새는 초가을의 상징입니다. 다회에서 그 상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도코노마에(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장식하는 족자와 꽃꽂이입니다. 족자는 계절의 이미지를 그린 그림이나 계절행사와 관련된 글을 걸고, 그 계절을 반영한 꽃이나 식물 등을 꽃꽂이로 장식합니다.

우라쿠엔의 ‘자하나엔(茶花園)’은 일년 내내 꽃이 피어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바깥 정원 중에서도 고즈넉한 이곳은 고안(弘庵)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무그늘길을 걸어 돌다리를 건너서 폭포를 지난 곳에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덕에서 물이 흘러내려 풍경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정원에는 우라쿠가 좋아하던 다양한 품종의 동백꽃을 비롯하여 쪽동백나무, 남매, 조팝나무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회에서는 주인과 손님의 기모노나 찻잔의 형태, 장식, 다과의 종류에 의해 더욱 섬세한 계절의 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라쿠엔에서는 봄에는 분홍색, 여름에는 녹색, 가을에는 오렌지색, 겨울에는 흰색으로 테를 두른 과자가 제공됩니다.